

“제자들 세계 무대에서 메달 따는 게 마지막 목표”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팀 감독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100m 한국신 김국영·멀리뛰기 1인자 김덕현 등 키운 명장
집 팔아 선수 스카우트 등 열정에 타 지역 선수들 ‘광주로’

대한민국 육상 발전을 이끌어온 광주시청 육상팀 심재용 감독(63)이 체육인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체육상을 받는다.

대한육상연맹은 2021년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상 수상자로 심재용 감독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상은 1963년 제정됐으며 지도상은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 발굴·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주어진다. 지도상을 육상 부문에서 수상하는 것은 황영조와 이봉주의 스승인 고 정봉수 감독에 이어 심재용 감독이 역대 두번째다.

심 감독은 한국 남자 100m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 멀리뛰기 1인자 김덕현, 여자हरु 대표 정혜림 등 대한민국 건판급 육상선수들을 조련한 육상계 최고 명장이다.

그는 여수 삼일중 1학년 때 육상에 입문, 고교 3년 때인 지난 1978년 100m에서 전남신기록(10초 80)을 작성한 단거리 유망주였다. 광주제고를 졸업한 뒤 선수생활을 하다 1989년 은퇴한 그는 지도자로서 ‘제2의 육상 인생’을 개척했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지도자로서 급여 30만원짜리 코치로 후진 양성에 나선 심 감독은 1994년 광주시청 육상부 전신인 광주시건설본부 실업팀이 창단되면서 지도자로서 본격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심 감독은 자신의 집을 팔아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를 마련하고 대한체육회 시상금도 선수들의 보양식 구입에 사용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런 그의 열정과 헌신에 지역 우수선수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선수들도 광주로 향했다. 육상스타 김재다를 비롯해 박태경, 임희남, 김덕현, 한정미, 배찬미, 김국영, 여호수아 등 우수선수들이 심 감독의 동지에 모여면서 광주시청은 호화 멤버를 구축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출전선수 전원 금메달 획득’의 이적표를 세우며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쓸어담은 것을 비롯해 2002년 83체전 금메달 5개, 2018년 99체전 금 4은 4·동 2개, 2019년 제100회 전국대회에서 금 6은 4·동 3개를 각각 획득했다.

심 감독의 지도력은 국제대회와 신기록에서 더

진가를 발휘한다. 심 감독의 지도를 받은 박태경의 한국신기록 5회 수립을 비롯해 김덕현이 8개, 김국영이 3개, 임희남이 2개 등 총 18회에 걸쳐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기록 제조기’ 팀으로 명성을 떨쳤다. 현재 김국영이 한국 남자 100m(10초07), 김덕현이 남자 세단뛰기(17m10)와 멀리뛰기(8m22)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덕현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멀리뛰기에서 8m02의 기록으로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파이널(8명 결선)에 진출하는 등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했다.

심 감독의 애제자인 김국영은 2010년 남자 100m에서 10초31로 서말구가 1979년 멕시코에서 작성한 한국신기록 10초34를 31년 만에 갈아치우며 이후 5차례 연속 신기록을 달성했고 현재는 국내 1위인 10초07까지 신기록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여자हरु를 정혜림이 급부상하면서 2011년 제19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2위 입상에 이어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서 대망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심 감독은 “모든 성과는 주변의 도움 덕분이었다.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땀흘리고 뛰어준 결과가 모여 큰 영광을 안게됐다”면서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육상 인생 마지막 목표다. 제자들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영광지부 환경정화활동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와 농협 영광군지부(지부장 양재영) 임직원 40여 명은 지난 29일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일대에서 ‘리그린(REGREEN) 농촌 환경정화활동’ 봉사를 벌였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광주 동구 학동 마을비전학교 수료식



임택 동구청장과 학동 주민들이 최근 학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비전학교 수료식을 갖고 학 모양 풍선으로 수료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광주 북구 용봉동 주민들, 종이팩 모아 화장지 기부

광주 북구 용봉동 주민들이 약 5개월동안 모아온 종이팩을 화장지 600개로 교환해 지역 소외이웃에게 기부했다.

5일 마을발전소에 따르면 용봉동 주민들은 빵집·카페·어린이집 등 20개 여 곳 및 주민을 대상으로 종이팩을 모아 왔다. 이는 용봉동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된 마을단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환된 화장지는 용봉동의 소외이웃과 어린이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

종이팩수거사업을 진행해온 박미경 자원순환해설사는 “처음에 종이팩수거에 소극적이던 가게에서도 동네 어린이들에게 화장지로 기부한다는 말을 듣고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마을발전소 정달성 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동네쓰레기문제해결사업’이 이제는 자원순환마을로의 전환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마을단위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수 출신 백시중 소설가 세종문화상 수상



여수 출신 백시중<사진> 소설가가 40회 세종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올해 40회 세종문화상 수상자로 백시중 소설가와 한글과컴퓨터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그 창조 정신을 잇고자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표창이다. 한국문화 진흥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과 상금을 시상한다.

백시중 작가는 여수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광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신춘문예(66년)에 ‘자라지 않는 나무’로 문단에 나왔으며 지난 2020년 ‘누란의 미녀’로 ‘동리·목월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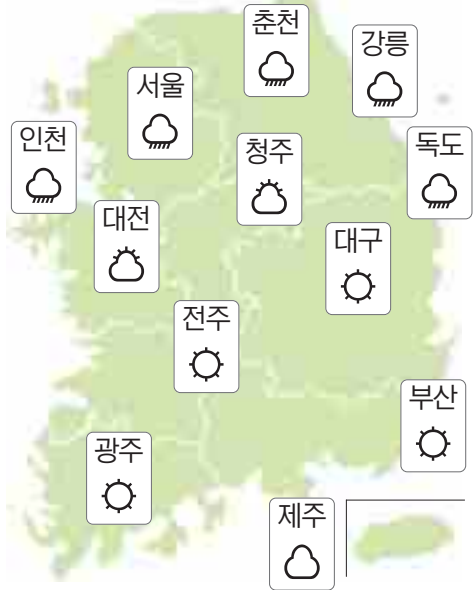
해돋이	06:30	달뜨기	04:46
해질	18:11	달짐	17:48

가을 늦더위

고기압 가장자리 들며 맑겠다.

광주	맑음	19/29	보성	맑음	16/28
목포	맑음	21/28	순천	맑음	19/30
여수	맑음	21/28	영광	맑음	18/29
나주	맑음	17/29	진주	맑음	18/28
완도	맑음	20/29	전주	맑음	20/29
구례	맑음	17/29	군산	맑음	19/27
강진	맑음	18/29	남원	맑음	17/29
해남	맑음	16/29	흑산도	맑음	22/28
장성	맑음	17/29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5	0.5~1.0
	면바다(남)	0.5~1.5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1.0~2.0	1.0~2.0
	면바다(동)	0.5~1.5	0.5~1.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3:23	01:10
		18:48	13:23
여수		02:06	08:17
		14:15	20:36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보통	보통

◇주간 날씨

6(수)	7(목)	8(금)
		
17/28	18/27	17/27
9(토)	10(일)	11(월)
		
19/28	19/27	16/22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정인재(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고성희씨 아들 기승균, 차재진·김미례씨 딸 아름양=17일(일) 낮 12시 광주광산구 도천동 하우스 오브 드레르 1층 지젤홀 062-228-0000.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 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취취약체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 스마트

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